

# 한국농어촌공사 울산지사, 집중호우 대비 배수장 안전 점검

✎ 배정환 기자 | ⓒ 승인 2025.08.10 16:51



한국농어촌공사 울산지사(지사장 손홍모)는 주말 집중호우를 대비해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관내 배수장 4개소를 점검했다고 8일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 울산지사(지사장 손홍모)가 주말 집중호우에 대비해 관내 배수장 4곳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조치는 침수 피해 예방과 신속한 배수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최근 기후변화로 국지성 호우와 집중강우가 잦아지면서 농업기반시설의 안정성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울산지사는 배수펌프 작동상태, 전력 공급 체계, 제진기 작동상태 등 배수장 가동 준비 상황과 비상 대응 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손흥모 지사장은 직접 현장을 찾아 호우 주의보 발효 시 즉시 가동이 가능하도록 전반적인 시설 상태를 확인했다. 그는 “농업기반시설의 안전 확보는 농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라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지사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시설점검과 함께 기상 상황에 맞춘 선제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디지털뉴스부 배정환 기자 [karion79@ksilbo.co.kr](mailto:karion79@ksilbo.co.kr)



**배정환 기자** [karion79@ksilbo.co.kr](mailto:karion79@ksilbo.co.kr)